

2016 시즌, 외인 천하나? 토종선발의 역습이나?



양현종



윤석민



김광현



봉준군

베이스볼 브레이크

2012년 이후 용병 강세…내년도 ML경력투수 건재
양현종·김광현 반격 준비…봉준군·윤석민 선발 복귀

다승과 방어율 타이틀이 모두 토종투수들에게 돌아간 것은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외국인투수들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고, 국내 적응을 마친 '지한파' 투수들이 KBO리그 마운드를 지배하고 있다. 2016년, 토종 에이스들의 반격이 가능할까.

●2012년 이후 외인부대 초강세, 2016년에도 세다!

2011년 윤석민(KIA)이 트리플 크라운(다승·방어율·탈삼진 1위)을 달성한 뒤로는 투수 부문 양대 타이틀인 다승과 방어율을 용병들이 점수하기 시작했다. 2012년 장원삼(삼성)이 17승으로 다승왕에 올랐으나, 다승 2위(16승)였던 브랜든 나이트(넥센)가 방어율(2.20) 타이틀을 챙겼다. 2013년에는 배영수(당시 삼성)와 크리스 세튼(SK)이 14승으로 다승 공동 1위였고, 찰리 쉬렉(NC)이 방어율왕(2.48)에 올랐다. 지난해는 20승을 올린 앤디 밴 헤켄(넥센)과 방어율 3.18을 기록한 릭 밴덴헐크(삼성)가 양대 타이틀을 가져갔고, 올해는 에릭 해커(NC)가 19승으로 다승왕에 오른 가운데 양현종(KIA)이 유일한 2점대 방어율(2.44)로 이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토종의 자존심을 지켰다.

'외인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밴 헤켄이 일본프로야구 세이부로 떠났지만, 국내 적응으로 더욱 무서워진 해커나 조쉬 린드블럼(롯데) 등이 건재하다. 여기에 대해 선수로 들어와 10경기서 4회 완투,

3회 완봉승을 포함해 6승2패, 방어율 2.97이라는 '괴력'을 선보인 에스밀 로저스(한화)가 190만달러라는 외국인선수 역대 최고액에 잔류했다. 기대되는 새 얼굴도 있다. KIA도 170만달러라는 거액에 헥터 노에시를 영입했다. 과거와 달리 린드블럼, 로저스, 노에시처럼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투수들이 KBO리그 행을 택하고 있다.

●'예비 FA' 양현종·김광현·차우찬 등 '토종 반격' 앞장

류현진(LA 다저스) 이후 토종 에이스들은 용병투수들을 압도하지 못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국내 에이스들에게 부침이 있었다. 그래도 내년에는 '대반격'이 기대된다. 올 시즌 2점대 방어율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인 좌완 양현종을 비롯해 또 다른 왼손 에이스 김광현(SK)이 나란히 FA(프리에이전트)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다. '예비 FA'로서 2016년이 더욱 중요한 만큼, 외인들을 압도할 성적을 낼지 관심을 모은다.

삼성은 물론 국가대표팀에서도 '핀올맨'으로 떠오른 차우찬(삼성)도 왼손 에이스 계보에 도전장을 내민다. 올해 데뷔 이후 최다인 13승을 올리고, 생애 첫 개인 타이틀(탈삼진 194개)까지 따냈다. 소속팀 투수들의 해외원정도박 스캔들로 인해 차우찬의 비중이 더욱 커진 가운데, 그 역시 '예비 FA'다.

마무리로 외도했다 선발로 복귀하는 원조 에이스들도 있다. KIA 윤석민과 LG 봉준군이 돌아와 선발전쟁에 불을 붙인다. 두산의 두 왼손투수 유희관과 장원준을 비롯해 LG의 언더핸드투수 유규민도 FA 자격을 앞두고 토종 에이스 자리에 도전한다.

이명노 기자 niranva@donga.com

넥센 김영민이 '김세현'으로 개명한 이유는?

"올해 부진·백혈병 아픔 동시에 터다"
서른살 맞아 야구인생 새 출발 다짐

1987년생. 한국나이로 서른 살. 넥센 우완투수 김영민이 안 좋았던 기억을 털어버리고, 김세현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 인생'을 연다.

김영민은 21일 KBO에 새 이름을 등록했다. '기세(勢)'와 '옥돌 현(玦)'으로,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크지 않다. 다만 더욱 단단해지겠다는 마음가짐을 새 이름에 담았다. 22일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부상과 부진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적이 없다. 내년 서른을 맞이하는데 선수로서 전환점에 섰다고 생각했다. 그저 그런 선수로 남고 싶지 않았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꼭 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쉬움이 많은 시즌이었다. 지난해 마무리캠프부터 웨이트트레이닝에 집중했고, 올해 스프링캠프에서 시속 150km대 중반의 묵직한 직구를 던지며 열경엽 감독의 '키 플레이어'로 꼽혔다. 제구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김세현은 필승조로 투입됐다. 그러나 결정적 상황에서 수차례 홈런을 허용했다. 한현희가 후반기부터 선발진에서 필승조로 전환되면서 김세현의 역할을 줄였다.

승부수를 던졌다. 구단에 선발 전환을 요청했다. 3차례 선발등판에서 5이닝을 막지 못했지만 9월 5일 문학 SK전에서 첫 선발승을 완봉으로 따냈다. 9이닝 99구를 던지며 5안타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데뷔 후 첫 완봉승이었다.

그러나 제 자리를 찾은 지 불과 나흘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그렇게 통원치료를 하며 2개월을 쉬었다. 그 사이 넥센은 준플레이오프에서 두산에 졌다. 올 시즌



넥센 우완투수 김영민이 김세현으로 개명했다. 한국 나이로 서른을 맞는 그는 올 시즌 부진과 백혈병의 아픔을 털고 새 인생과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57경기에 등판해 4승5패6홀드, 방어율 4.38을 기록했다. 그는 "마운드에 설 때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최근 병원 검진을 통해 정상을 확인했다. 3개월에 한번 검진을 받고, 2년 동안 약을 먹어야 하지만 내년을 위해 부지런히 몸을 만들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몸무게는 조금 줄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칭찬했다. 김세현은 "완봉 후 2~3경기를 더 던졌다면 내년시즌 준비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을 맞겠다"며 웃었다.

한편 김세현은 이날 올해 9500만원에서 6500만원 오른 1억6000만원에 내년 연봉 계약을 했다. 앤디 밴 헤켄과 손승락이 각각 세이부(일본)와 롯데로 이적한 가운데, 한현희마저 이날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아 내년 등판이 불투명해졌다. '서른을 맞은' 김세현이 마운드에서 강한 책임감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NC·kt "마이너리그 연합팀 한판 붙자"

LA 2차 전지훈련 연습경기 조율중

NC와 kt가 내년 2차 스프링캠프지인 LA에서 마이너리그들로 구성된 연합팀과 손을 잡는다.

NC와 kt는 내년 1월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소화한 뒤 LA로 넘어가 2차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NC는 애리조나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대다수의 팀들과 달리 올해부터 미국에 남아 훈련했고, kt도 내년부터는 NC와 같은 동선으로 움직인다.

따뜻한 곳에서 계속 훈련할 수 있게 됐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다. 실전감각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에 연습경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 두산, 넥센 등이 1차 전훈련을 마치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유로 일본프로팀들과 연습경기를 펼치기 위해서다.

NC의 경우 올해 LA에서 미국 대학팀들과 경기를 치렀지만 팀당 1경기밖에 할 수 없는 제약이 있

어 상대적으로 경기수가 모자랐다. 내년에는 kt가 합류하면 상황이 그나마 나아지지만 한계는 여전히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이너리그 연합팀과의 경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는 "2월이 되면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개인훈련을 위해 LA에 모인다. 이들 역시 이 시기에 실전감각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올해도 마이너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연합팀과 2번의 연습경기를 진행했는데, 트리플A 선수들도 포함돼 있어서 그런지 기량이 만만치 않았다. 심지어 우리 팀과 경기를 하기 위해 5시간이 걸려 참가한 선수가 있을 정도로 열의가 있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마이너리그 연합팀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도 "NC와 의논해서 경기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많은 연습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여행의 즐거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외여행상품 정보가 더 쉽고 투명해집니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필수옵션 폐지
여행상품가격에 반영

현지 필수경비 명시
여행경비 총액 표시

부정확, 불분명한
용어 사용규제

핵심정보
일괄표시제 시행

참여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KATA 한국여행업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지금 검색해보세요
http://www.smartoutbound.or.kr/